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4 주차 (19:8~19:37)

(2015년 11월 22일 - 2015년 11월 28일)

(제3권 44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1 월 2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 (주일)

오늘의 본문 (요19:8-15)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원문해석하기

- (8절)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Ὅτε οὖν ἤκουσεν ὁ Πιλάτος τοῦτον τὸν λόγον,) 그는 더더욱 두려워했습니다 (μᾶλλον ἐφοβήθη.)
- (9절) 그리고 그가 그의 관저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καὶ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 πραιτώριον πάλιν καὶ λέγει τῷ Ἰησοῦ·) 당신이 어디로부터 있느냐? (πόθεν εἶσύ;)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όκρισιν οὐκ ἔδωκεν αὐτῷ.)
- (10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ἐμοὶ οὐ λαλεῖς;)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이 있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οὐκ οἶδας ὅτι ἐξουσίαν ἔχω ἀπολύσαι σε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σταυρῶσαί σε;)
- (11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당신은 나에게 대해 어떤 한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οὐκ εἶχες ἐξουσίαν κατ' ἐμοῦ οὐδεμίαν) 만약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ν δεδομένον σοι ἄνωθεν·)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큰 죄를 갖고 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ὁ παραδούς μέ σοι μείζονα ἁμαρτίαν ἔχει)
- (12절) 그로부터 빌라도가 그들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ἐκ τούτου ὁ Πιλάτος ἐζήτει ἀπολύσαι αὐτόν·)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여 외쳤습니다 (οἱ δὲ Ἰουδαῖοι ἐκραύγασαν λέγοντες·)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 준다면 (ἐὰν τοῦτον ἀπολύσῃς;)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οὐκ εἶ φίλος τοῦ Καίσαρος;)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모든 사람은 카이사르에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 (πίς ὁ βασιλέα ἑαυτὸν ποιῶν ἀντιλέγει τῷ Καίσαρι.)
- (13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들은 후 (ὁ οὖν Πιλάτος ἀκούσας τῶν λόγων τούτων)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ἦγαγεν ἔξω τὸν Ἰησοῦν) 그리고 ‘박석’ (히브리어로는 갑바다)이라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καὶ ἐκάθισεν ἐπὶ βήματος εἰς τόπον λεγόμενον λιθόστρωτον, Ἑβραϊστί δὲ Γαββαθα.)
- (14절) 유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ἦν δὲ παρασκευὴ τοῦ πάσχα,) 시간은 육시였습니다 (ὥρα ἦν ὡς ἕκτη.)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보라 당신들의 왕이다 (ἴδε ὁ βασιλεὺς ὑμῶν.)
- (15절) 그러자 그들이 외쳤습니다 (ἐκραύγασαν οὖν ἐκεῖνοι) 들어 올리라 들어 올리라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라 (ἄρον ἄρον, σταύρωσον αὐτόν.)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Πιλάτος)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형에 처하라? (τὸν βασιλέα ὑμῶν σταυρώσω;)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카이사르 외에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ομεν βασιλέα εἰ μὴ Καίσαρ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이사르까지 들먹이며 집요하게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12절은 “그 때로부터” (ἐκ τούτου)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이러하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시점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며 적어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분 정도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죽일 죄가 있어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 총독이라는 지위는 식민지 국민들에게 그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거지요.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애기서 애를 썼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애썼을까요? 요한복음은 여기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관복음을 통해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간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마 27:19).

빌라도의 아내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죄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녀는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꿈’(ὄναρ:오나르)이라는 단어는 단지 6번 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하게 쓰인 단어가 아닌 것이지요. 그 중에 다섯 번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부

친인 요셉에게 현몽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바로 마태복음 27 장 19 절에 쓰였습니다. [참고로 ‘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쓰였는데 사도행전 2 장 17 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때 쓴 단어는 ‘오나르’가 아니라 ‘에누프니온’ (ἐνύπνιον)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꿈’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꿈으로 고생을 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아내의 꿈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로마 황제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지요. 12 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 준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모든 사람은 카이사르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고, 이는 로마 제국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니 예수를 반역죄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반역죄로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를 재판한 빌라도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반역자인 예수 편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 독립 운동을 주도한 사람,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 눈앞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소인배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상적인 유대 지도자들이라면 만약(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독립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숨겨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사람들인 것이지요.

13 절을 읽으십시오. 집요하게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외침에 결국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요한은 그 재판석에 대해 친절하게도 “박석이라 불리우는 재판석”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 더해 히브리어로는 ‘갑바타’라고 부른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소, 재판석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 분명합니다. ‘박석’ (λίθόστρωτος (리도스트로토스))은 돌로 포장한 것으로 일반 돌과 검은색 돌을 섞어 마치 모자이크처럼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갑바타 (גַּבְתָּא)’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석은 중죄인을 다루고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특히, 돌로 모자이크한 포장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총독부와 바깥 지역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장소이며 세상의 권력이 절대치로 발휘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빌라도가 앉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 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심판의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의 피가 그 제물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력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제물의 효력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심판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 5:22 참조). 하지만 지금 아들은 그 권한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박석’이라는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는 이후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들도 빌라도의 그런 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이 심판은 바로 믿는 우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유월절 준비일에 어린양이 되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19:8-15)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원문해석하기

- (8절)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Ὅτε οὖν ἤκουσεν ὁ Πιλάτος τοῦτον τὸν λόγον,) 그는 더더욱 두려워했습니다 (μᾶλλον ἐφοβήθη.)
- (9절) 그리고 그가 그의 관저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καὶ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 πραιτώριον πάλιν καὶ λέγει τῷ Ἰησοῦ·) 당신이 어디로부터 있느냐? (πόθεν εἶσύ;)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όκρισιν οὐκ ἔδωκεν αὐτῷ.)
- (10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ἐμοὶ οὐ λαλεῖς;)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이 있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οὐκ οἶδας ὅτι ἐξουσίαν ἔχω ἀπολύσαι σε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σταυρῶσαί σε;)
- (11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당신은 나에게 대해 어떤 한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οὐκ εἶχες ἐξουσίαν κατ' ἐμοῦ οὐδεμίαν) 만약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ν δεδομένον σοι ἄνωθεν·)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큰 죄를 갖고 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ὁ παραδούς μέ σοι μείζονα ἁμαρτίαν ἔχει)
- (12절) 그로부터 빌라도가 그들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ἐκ τούτου ὁ Πιλάτος ἐζήτει ἀπολύσαι αὐτόν·)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여 외쳤습니다 (οἱ δὲ Ἰουδαῖοι ἐκραύγασαν λέγοντες·)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 준다면 (ἐὰν τοῦτον ἀπολύσῃς;)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οὐκ εἶ φίλος τοῦ Καίσαρος;)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모든 사람은 카이사르에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 (πῶς ὁ βασιλέα ἐαυτὸν ποιῶν ἀντιλέγει τῷ Καίσαρι.)
- (13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들은 후 (ὁ οὖν Πιλάτος ἀκούσας τῶν λόγων τούτων)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ἦγαγεν ἔξω τὸν Ἰησοῦν) 그리고 ‘박석’ (히브리어로는 갑바다)이라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καὶ ἐκάθισεν ἐπὶ βήματος εἰς τόπον λεγόμενον λιθόστρωτον, Ἑβραϊστί δὲ Γαββαθα.)
- (14절) 유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ἦν δὲ παρασκευὴ τοῦ πάσχα,) 시간은 육시였습니다 (ὥρα ἦν ὡς ἕκτη.)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보라 당신들의 왕이다 (ἴδε ὁ βασιλεὺς ὑμῶν.)
- (15절) 그러자 그들이 외쳤습니다 (ἐκραύγασαν οὖν ἐκεῖνοι) 들어 올리라 들어 올리라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라 (ἄρον ἄρον, σταύρωσον αὐτόν.)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Πιλάτος)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형에 처하라? (τὸν βασιλέα ὑμῶν σταυρώσω;)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카이사르 외에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ομεν βασιλέα εἰ μὴ Καίσαρ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처형되신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이란 유월절을 위해 양을 잡는 날입니다. 흠 없는 수많은 양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던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었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의 유래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내린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 11:4-7).

이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³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⁵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⁶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⁷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중략)...¹²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¹³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 12:1-13).

이퍼럼 유월절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죄우 문설주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 경고를 듣고 어린양을 잡아 자신의 죄우 문설주 인방에 발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도 분명 장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만 하셨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피가 그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 피로 보호받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의는 능력을 상실당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해도, 반대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목숨은 자신들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문설주의 피가 기준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날을 ‘유월절 예비일’ 즉, 양을 잡는 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준은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인간의 거룩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도, 의로움도 그 빛을 잃어 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 (Νυνὶ δὲ)
율법을 떠나 (χωρὶς νόμου)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παφανέρωται)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μαρτυρουμέ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예수그리스도의 신실하심[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δικαιοσύνη δὲ θεοῦ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차별이 없다 (οὐ γὰρ ἔστιν διαστολή.)”

로마서 3:21~22절 말씀은 두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입니다. 어떻게 차별이 없다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의 효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삶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보라 당신들의 왕이다.”

15절을 읽으십시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중대한 시간에 자신들 스스로의 입으로 그들의 주권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신들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섬겨야 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세상의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순한 무지가 낳은 헤프닝으로 보기에 너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 가장 말도 안되는 재판 현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 사형에 처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강도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19:16~22)

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17.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18.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6절) 그런 후에 그가[빌라도가] 그를[예수를] 그들에게[군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Τότε οὖν παρέδωκεν αὐτὸν αὐτοῖς)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ἵνα σταυρωθῇ.)
그러자 그들이[군인들이] 예수를 넘겨 받았습니다 (Παρέλαβον οὖν τὸν Ἰησοῦν.)
- (17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채 크라니온(해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καὶ βασιτάζων ἑαυτῷ τὸν σταυρὸν ἐξῆλθεν εἰς τὸν λεγόμενον Κρανίου Τόπον.)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ὃ λέγεται Ἑβραϊστὶ Γολγοθα.)
- (18절) 그곳에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ὅπου αὐτὸν ἐσταύρωσαν.)
그리고 그의 양 옆으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καὶ μετ' αὐτοῦ ἄλλους δύο ἐντεῦθεν καὶ ἐντεῦθεν, μέσον δὲ τὸν Ἰησοῦν.)
- (19절) 빌라도가 패를 기록했습니다 (ἔγραψεν δὲ καὶ τίτλον ὁ Πιλάτος)
그리고 십자가 위에 위치시켰습니다 (καὶ ἔθηκεν ἐπὶ τοῦ σταυροῦ.)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ἦν δὲ γεγραμμένον·)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Ἰησοῦς ὁ Ναζωραῖος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 (20절)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습니다 (τοῦτον οὖν τὸν τίτλον πολλοὶ ἀνέγνωσαν τῶν Ἰουδαίων.)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한 장소가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γὺς ἦν ὁ τόπος τῆς πόλεως ὅπου ἐσταυρώθη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καὶ ἦν γεγραμμένον Ἑβραϊστὶ, Ῥωμαῖστὶ, Ἑλληνιστί.)
- (21절)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τῷ Πιλάτῳ οἱ ἀρχιερεῖς τῶν Ἰουδαίων·)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오 (μὴ γράφει·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오히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가 말했다”라고 쓰시오
 (ὄλλ’ ὅτι ἐκεῖνος εἶπεν· βασιλεὺς εἰμι τῶν Ἰουδαίων.)
 (22절)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Πιλάτος·)
 내가 쓸 그것을 내가 썼다 (ὁ γέγραφα, γέγραφ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 절을 읽으십시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군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를 넘겨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복음 모두 동일합니다. 결국 공식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고 단지 무리의 협박에 의해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넘겨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처하는 기준이 공정한 재판이나 유죄 입증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감정적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심중에 예수님이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으나 그 확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정쩡하게 재판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한 셈이 되었으니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²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²⁵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²⁶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 (마 27:24-26).

1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크라니온’이라 불리는 장소로 나오셨습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 27:32).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막 15:21).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눅 23:26).

공판복음은 일관되게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지금의 리비아 땅)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시몬이 구레네 거주민

인데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인지 아니면 구레네 출신으로 유대 땅으로 이주해 온 거주민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신이 끌고 가지 않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랬으리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인간적인 억지 해석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공관 복음의 독자들인 초대 교회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마가복음은 시몬에 대해 다른 공관 복음보다 더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마가는 왜 굳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였을까요? 아마도 마가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마가는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일차 독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을 겁니다. 동일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도 루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로 16:13).

다음으로 ‘크라니온 토폰’ (Κρανίου Τόπον) 즉, ‘해골의 장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혹자는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곳이 사형 집행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전설에 따르면 아담의 해골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다고도 합니다(참조.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1) (Grand Rapids: Zondervan, 1997), 860.)

18 절을 읽으십시오. 그곳에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죄우 양옆에 다른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27:44, 막 15:32 참조). 다만 누가복음만 이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³²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중략)...³⁹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⁴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⁴¹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⁴²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⁴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32-43).

왜 하필이면 두명의 행악자(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을까요? 그리고 한 명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아 보기는커녕 오히려 비방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말입니다. 이같은 질문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도 너무나 극적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으시는 순간도 매우 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절심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합니다. 그와는 달리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갇은 조롱을 다 받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문득 찾아온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도록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닐까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19:16~22)

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17.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18.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라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6절) 그런 후에 그가[빌라도가] 그를[예수를] 그들에게[군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Τότε οὖν παρέδωκεν αὐτὸν αὐτοῖς)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ἵνα σταυρωθῇ.)
그러자 그들이[군인들이] 예수를 넘겨 받았습니다 (Παρέλαβον οὖν τὸν Ἰησοῦν.)
- (17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채 크라니온(해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καὶ βαστάζων ἑαυτῷ τὸν σταυρὸν ἐξῆλθεν εἰς τὸν λεγόμενον Κρανίου Τόπον.)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ὃ λέγεται Ἑβραϊστὶ Γολγοθα.)
- (18절) 그곳에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ὅπου αὐτὸν ἐσταύρωσαν.)
그리고 그의 양 옆으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καὶ μετ' αὐτοῦ ἄλλους δύο ἐντεῦθεν καὶ ἐντεῦθεν, μέσον δὲ τὸν Ἰησοῦν.)
- (19절) 빌라도가 패를 기록했습니다 (ἔγραψεν δὲ καὶ τίτλον ὁ Πιλάτος)
그리고 십자가 위에 위치시켰습니다 (καὶ ἔθηκεν ἐπὶ τοῦ σταυροῦ.)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ἦν δὲ γεγραμμένον·)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Ἰησοῦς ὁ Ναζωραῖος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 (20절)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습니다 (τοῦτον οὖν τὸν τίτλον πολλοὶ ἀνέγνωσαν τῶν Ἰουδαίων.)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한 장소가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γὺς ἦν ὁ τόπος τῆς πόλεως ὅπου ἐσταυρώθη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καὶ ἦν γεγραμμένον Ἑβραϊστὶ, Ῥωμαῖστὶ, Ἑλληνιστί.)
- (21절)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τῷ Πιλάτῳ οἱ ἀρχιερεῖς τῶν Ἰουδαίων·)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오 (μὴ γράφῃ·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오히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가 말했다.”라고 쓰시오

(ὄλλ' ὅτι ἐκεῖνος εἶπεν· βασιλεὺς εἰμι τῶν Ἰουδαίων.)

(22절)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Πιλάτος·)

내가 쓸 그것을 내가 썼다 (ὁ γέγραφα, γέγραφ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9 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만들어 십자에 위에 놓습니다.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만나 십자가형에 처하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한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이 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총 다섯 번 등장합니다. 첫 두 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였고 다음 두 번은 겐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글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사렛으로 가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 장 19 절부터 23 절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¹⁹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²⁰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²¹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²²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²³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마 2:19-23).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언어가 아람어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예언은 구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기 스스로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렛이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나사렛이라는 지방 이름이 붙는다면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닐까요?)

‘나사렛’의 히브리어 어근은 ‘나짜르’ (נָצַר)입니다. 이 단어는 ‘식물의 줄기’라는 뜻입니다. 새싹보다는 좀 성숙했지만 완전히 가지로 자라지 않은 연한 줄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 총 네 번 등장합니다(사 11:1; 14:19; 60:21; 단 11:7). 그 중에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관지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11:1 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 11:1).

사도행전 13 장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 13:22-23).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구약을 인용하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역설합니다.

“⁹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이르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보다 함과 같으니라 ¹⁰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¹¹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¹²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롬 15:9-12).

이 두 말씀 모두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나짜르’는 새싹에서 완전히 성숙한 가지로 되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중간 단계의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진 나사렛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부터 난 가지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참조. Willem A, VanGemere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3)(Grand Rapids: Zondervan, 1997), 148-149.).

결국 나사렛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거하셨던 시기는 아직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지 않은 채 때를 기다리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나사렛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기 전 100%인간으로만 살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 나사렛을 떠나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삶을 사신 이후에 나사렛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받기지 않았습디다. 오히려 배척했지요.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단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닌 ‘유대인의 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합니다.

20-22절을 읽으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패를 읽었습니다. 그 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글을 아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왔을 것이며 그들은 그 패를 읽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의도했든 안했든 예수님의 정체를 만천하에 선포한 셈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란 말에 강하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연히 써야 할 것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빌라도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었고 그분의 뜻 안에서 빌라도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선포하신 메시지인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9:23~27)

2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3절)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의 옷을 가져갔습니다
(Οἱ οὖν στρατιῶται, ὅτε ἐσταύρωσαν τὸν Ἰησοῦν, ἔλαβον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그리고 그것을 각 군인들에게 한 조각씩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καὶ ἐποίησαν τέσσαρα μέρη, ἐκάστῳ στρατιώτῃ μέρος.)
그리고 속옷을 [가졌습니다] (καὶ τὸν χιτῶνα.)
그런데 그 속옷은 꿰메지 않고 위로부터 전체를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ἦν δὲ ὁ χιτῶν ἄραιρος, ἐκ τῶν ἄνωθεν ὑφαντὸς δι' ὅλου.)
- (24절) 그러자 [군인들이] 서로서로 이야기 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πρὸς ἀλλήλους·)
이것을 찢지말자 (μὴ σχίσωμεν αὐτόν.)
그대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 (ἀλλὰ λάχωμεν περὶ αὐτοῦ τίος ἔσται·)
그 결과 기록이 성취되었다 [말하기를]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ἢ λέγουσα]·)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나의 옷을 나누고 (διεμερίσαντο τὰ ἱμάτιά μου ἑαυτοῖς)
나의 옷을 제비뽑아 가졌습니다 (καὶ ἐπὶ τὸν ἱματισμὸν μου ἔβαλον κλῆρον.)
그런데 사실 군사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Οἱ μὲν οὖν στρατιῶται ταῦτα ἐποίησαν.)
-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Εἰστήκεισαν δὲ παρὰ τῷ σταυρῷ τοῦ Ἰησοῦ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καὶ ἡ ἀδελφὴ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Μαρία ἡ τοῦ Κλωπᾶ καὶ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ῆ.)
- (26절)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의 곁에 서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며
(Ἰησοῦς οὖν ἰδὼν τὴν μητέρα καὶ τὸν μαθητὴν παρεστῶτα ὃν ἠγάπα·)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ῇ μητρὶ·)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γύναι, ἴδε ὁ υἱός σου.)
- (27절) 그런 후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τα λέγει τῷ μαθητῇ·)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ἴδε ἡ μήτηρ σου.)
그리고 그 시간 이후 (καὶ ἀπ' ἐκείνης τῆς ὥρας)

그 제자가 그녀를 그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ἔλαβεν ὁ μαθητὴς αὐτὴν εἰς τὰ ἴδια.)

하나님의말씀 이해하기

23 절 상반절을 읽으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 예수님의겂옷과 속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겂옷은 네 조각으로 나누어 하나씩 가졌습니다.

옷을 나누어 갖는 것은 당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들은 형을 집행할 때 자신들이 집행한 죄수의 옷을 일종의 전리품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겂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처형하는 군인들이 네 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인 1 조는 당시 로마 군대에서 죄수를 다루는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2 장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 장 1 절~4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때에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²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³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⁴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행 12:1-4).

23 절 하반절~24 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은 겂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꿰메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찢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 했습니다. 속옷은 찢지 말고 체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비뽑아 한 사람이 그것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편 22 편 18 절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시편 22 편이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며 다윗왕이 예수님의 수난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23-24 절에서 몇 가지 심오한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겂옷과 속옷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인물들이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실제로 체험하고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벌거벗겨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라며 아주 인간적인 감성에만 매달립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더 깊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 예수님이 느꼈을 수치스러운 감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졌다라는 표현조차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되어 벌거벗은 채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저 자신들이 그동안 벗고 다닌 것을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동안도 벗고 다녔지만 그것을 수치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벌거벗음이 수치로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죄성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벌거벗음=수치’라는 공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거벗음은 단지 옷을 입지 않은 나신의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것이 없어 헐벗은 상태, 즉,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 장에서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 3:17).

‘벌거벗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부자중의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하나님 눈에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신이 헐벗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상태로 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갈 때의 종말론적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체험하고 가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헐벗은 상태입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구원이란 자신의 헐벗음을 알고 하나님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서 힘없고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안심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단편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 수치를 내가 진정으로 체험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치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잘 차려입고 살고 있는데 그 위에 겹옷을 가져와 가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벌거벗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 매달린 그분이 바로 나여야 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나가고 있으면서 그 위에 기독교라는 종교적 조끼를 하나 더 껴입은 것은 아닌지요? 당신은 진정으로 헐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벌거벗기고, 사람들이 속옷을 제비뽑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자로 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그렇기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한 것도 그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고난 중에 경험하고 느끼고 영감을 얻어 지은 시(시편 22편)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실 수난을 표현한 것이지요. 따라서 그림자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고 맙니다. 구약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 해석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그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가요? 구약을 읽을 때 은혜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표본으로 보고 계시는 않은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9:23~27)

2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3절)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의 옷을 가져갔습니다
(Οἱ οὖν στρατιῶται, ὅτε ἐσταύρωσαν τὸν Ἰησοῦν, ἔλαβον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그리고 그것을 각 군인들에게 한 조각씩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καὶ ἐποίησαν τέσσαρα μέρη, ἐκάστῳ στρατιώτῃ μέρος.)
그리고 속옷을 [가졌습니다] (καὶ τὸν χιτῶνα.)
그런데 그 속옷은 꿰메지 않고 위로부터 전체를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ἦν δὲ ὁ χιτῶν ἄραιρος, ἐκ τῶν ἄνωθεν ὑφαντὸς δι' ὅλου.)
- (24절) 그러자 [군인들이] 서로서로 이야기 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πρὸς ἀλλήλους·)
이것을 찢지말자 (μὴ σχίσωμεν αὐτόν.)
그대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 (ἀλλὰ λάχωμεν περὶ αὐτοῦ τίνος ἔσται·)
그 결과 기록이 성취되었다 [말하기를]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ἢ λέγουσα]·)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나의 옷을 나누고 (διεμερίσαντο τὰ ἱμάτιά μου ἑαυτοῖς)
나의 옷을 제비뽑아 가졌습니다 (καὶ ἐπὶ τὸν ἱματισμὸν μου ἔβαλον κλῆρον.)
그런데 사실 군사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Οἱ μὲν οὖν στρατιῶται ταῦτα ἐποίησαν.)
-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Εἰστήκεισαν δὲ παρὰ τῷ σταυρῷ τοῦ Ἰησοῦ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καὶ ἡ ἀδελφὴ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Μαρία ἡ τοῦ Κλωπᾶ καὶ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ῆ.)
- (26절)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의 곁에 서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며
(Ἰησοῦς οὖν ἰδὼν τὴν μητέρα καὶ τὸν μαθητὴν παρεστῶτα ὃν ἠγάπα·)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ῇ μητρὶ·)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γύναι, ἴδε ὁ υἱός σου.)
- (27절) 그런 후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τα λέγει τῷ μαθητῇ·)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ἴδε ἡ μήτηρ σου.)
그리고 그 시간 이후 (καὶ ἀπ' ἐκείνης τῆς ὥρας)

그 제자가 그녀를 그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ἔλαβεν ὁ μαθητὴς αὐτὴν εἰς τὰ ἴδια.)

하나님의말씀 이해하기

25절을 읽으십시오. 옷은 모두 벗겨서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마리아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모두 마리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는 누구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의 이름도 혹시 마리아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자는 글로바의 마리아를 예수님의 이모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매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일이기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그냥 네 명의 여인이 서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D.A. Carson, 615참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⁵⁵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좇아 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⁵⁶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 27:55-56).

“⁴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⁴¹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좇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막 15:40-41).

공관 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들’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교회는 12명의 남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기록할 때는 ‘여자들’을 강조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추측컨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 것은 아닐까요?)

다음은 ‘마리아’라는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마리아는 고통, 슬픔 등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불순종, 반역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은 헬라이어인 마리아와 동일한 단어임). 그녀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그동안 쌓였던 반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모세를 정면으로 대적하였습니다 (민 12장 참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경우에 이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프리바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에피소드에서도 ‘마라’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민 20:10).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프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민 20:24).

여기에 쓰인 ‘패역’과 ‘거역’은 마리아의 어원인 ‘마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지는 않았습니 다.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의로 충분하여 예수님을 별거벗겨 처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벗었음을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얼마나 비통함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마리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마라’였으며 이제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서 있는 ‘마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 장소에서 함께 별거벗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통해 안위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꼴찌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늘 병마에 시달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깨닫고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가 부끄러워 얼굴이 후끈거리는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끔히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스스로를 가리던 그 ‘애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한때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나요? 은혜의 복음 보다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한 적은 없었는지요? 그 배반과 불순종의 ‘마라’에서 ‘비통함’의 마라로 변화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 마리아들과 같은 자일 것입니다.

26-2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제자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어머니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γυναῖκα, ἴδε ὁ υἱός σου.)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갈릴리가나의 혼인 잔치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인칭(당신)을 사용하여 마리아의 눈으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지요. 우리는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려 해도 결코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아들이지 잉태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은 그저 몸만 빌려 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특히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냉정하리만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의 기록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³¹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³²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³³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³⁴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³⁵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 3:31-35).

그것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공생애 기간 동안 철저하게 그분의 사역에서 배제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가족은 사역의 협력자 또는 동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갑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이 논증하고자 하는 ‘예수님의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존재하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27절을 읽으십시오.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 곁에서 있는 제자(사도 요한으로 추정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Ἰδε ἡ μήτηρ σου.)

이 말씀만 보면 마리아가 가족도 없이 홀로 이 땅에 남겨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예수님은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등과 함께 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뒤에는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마리아는 돌볼 사람 하나 없는 소위 무의탁 노인은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돌보라는 뜻이기보다는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는 한 형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고도의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피로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말이지요.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과 한 형제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다 이루었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19:28~37)

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시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니라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28절)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을 아신 이후
(Μετὰ τοῦτο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δη πάντα τετέλεστοι,
성경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ἵνα τελειωθῇ ἡ γραφή),
그[예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διψῶ).)
- (29절) 신포주가 가득 담긴 잔이 놓여있었습니다 (σκεῦος ἔκειτο ὄξους μεστόν·)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 가득한 스폰지를 우슬초로
(σπόγγον οὖν μεστόν τοῦ ὄξους ὑσώπῳ περιθέντες)
그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προσήνεγκαν αὐτοῦ τῷ στόματι.)
- (30절)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말씀하시길 (ὅτε οὖν ἔλαβεν τὸ ὄξος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τετέλεστοι),
그가 머리를 숙이시면서 그 영을 넘겨주셨습니다 (καὶ κλίνας τὴν κεφαλὴν παρέδωκεν τὸ πνεῦμα.)
- (3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그 날이]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ἐπεὶ παρασκευῆ ἦν),
안식일에 그의 몸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μείνῃ ἐπὶ τοῦ σταυροῦ τὰ σώματα ἐν τῷ σαββάτῳ),
왜냐하면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ἦν γὰρ μεγάλη ἡ ἡμέρα ἐκείνου τοῦ σαββάτου),
그들이 빌라도를[에게] 요구했습니다 (ἠρώτησαν τὸν Πιλάτον)

-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없이 하도록 (ἵνα καταργῶσιν αὐτῶν τὰ σκέλη καὶ ἄρθῶσιν.)
- (32절) 그러자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ἦλθον οὖν οἱ στρατιῶται)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첫 번째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καὶ τοῦ μὲν πρώτου κατέαξαν τὰ σκέλη)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다른 사람의 (καὶ τοῦ ἄλλου τοῦ συστρωθέντος αὐτῷ·)
- (33절)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ἐπὶ δὲ τὸν Ἰησοῦν ἐλθόντες,)
그들이 그가 아미 죽은 것을 보자 (ὡς εἶδον ἤδη αὐτὸν τεθνηκότα.)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οὐ κατέαξαν αὐτοῦ τὰ σκέλη.)
-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창으로 그[예수님]의 옆을 찔렀습니다
(ἀλλ' εἷς τῶν στρατιωτῶν λόγχῃ αὐτοῦ τὴν πλευρὰν ἔνυξεν.)
즉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εν εὐθὺς αἷμα καὶ ὕδωρ.)
- (35절)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습니다 (καὶ ὁ ἑωρακὼς μαρτύρηκεν.)
그리고 그의 증거는 참되었습니다 (καὶ ἀληθινὴ αὐτοῦ ἐστὶν ἡ μαρτυρία.)
그가 참을 말한 것을 알았고 (καὶ ἐκεῖνος οἶδεν ὅτι ἀληθῆ λέγει.)
너희들이 믿게하려 함이라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πιστεύ[σ]ητε.)
- (36절)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 (ἐγένετο γὰρ ταῦτα)
성경이 성취되도록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ὅστων οὐ συντριβήσεται αὐτοῦ.)
- (37절)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시 말하길 (καὶ πόλιν ἑτέρα γραφὴ λέγει·)
그를 찌른 자들을 그가 볼 것이다 (ὄμονται εἰς ὃν ἐξεκέντησα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8-2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셨음을 아신 후에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스폰지에 실포도주를 흠뻑 적셔서 입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구원의 완수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 있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직접적 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가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을 넘겨주는 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을 아신 후’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실포도주를 먹인 일에 대해 요한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예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지칭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시 69:21).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사건을 이 말씀의 성취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죽기 전에 신포도주를 마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먼저 말씀하시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 그곳에 있던 신포도주를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공관 복음의 기록은 약간 다릅니다. 공관 복음은 이 사건을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³³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³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마 27:33-34).

“³⁴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³⁵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³⁶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막 15:34-36).

“³⁵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찌어다 하고 ³⁶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포도주를 주며 ³⁷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눅 23:35-37).

이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준 목적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희롱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통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당시 신포도주는 일종의 원기 회복제로 그것을 마시면 힘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지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어 예수님이 조금이나마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들이 가진 악마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최대한 느끼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숨을 거두십니다. 신포도주가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악마성을 보여 준 것이라면, 그리고 그 악마성이 예수님의 기력을 회복시켜 생명을 연장함으로써 고통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30절을 읽으십시오. 신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τετέλεσται) “다 이루었도다”(It is finished.)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영을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그리고 자신의 영을 넘겨주었다는 말은 패배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17장 4-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텔레이오사스’(τελειώσας)입니다. ‘테텔레스타이’(τετέλεσται)와 같은 동사를 사용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간들이 그것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사실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체면을 세울 수도, 또 자랑거리라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도 예수고 나중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이렇게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였다!”

당신은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